

統一新羅時代의 宮殿建築

張慶浩

序論

宮闕은 古代로부터 近代에 이르기까지 君主가 支配階級으로서 民을 다스리기 위한 活動空間으로, 王이나 帝候 및 그의 家族이 居處하거나 政務를 보던 建築을 말한다. 그러므로 宮闕은 古代神殿 및 宗教建築과 더불어 權威를 象徵하며 威嚴을 나타냈고 規範과 制度를 갖는 當時 또는 建築의 理想形이라 말할 수 있다.

특히 王朝社會에서 王族과 官僚系統에 의하여 形成된 上層文化의 生活 中心地로서 그時代, 그나라 最高의 華麗한 建築文化를 이루어 高貴性과 傳統性, 體系性, 그리고 藝術性을 나타내는 建築을 造營했다 할 수 있다. 東洋의 宮闕建築 發生은 紀元 數世紀前 中國의 奴隸制社會時代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考工記』에 記述한 殷의 重屋之制①라든가 周代의 明堂說② 등은 當時의 宮室建築을 意味하여 初期의인 宮室制度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宮都에 대하여도 『考工記』 匠人條에 「左祖右社 面朝後市」와 「匠人營國方九里」 및 「國中九經九緯經塗九軌」라 되어 있어 當時 宮室建築制度가 이미 確立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日人 米田美代治는 宮室의 配置原理로서 漢代 『史記』 天官書에 나오는 天文五行思想③이 그 基本을 이룬다고 하여 우리나라 高句麗時代의 遺蹟인 平壤 清岩理寺址의 配置形式을 이와 關聯시켜 說明하였다. 그러나 近來 北韓에서 發掘調査하여 發表된 高句麗의 安鶴宮址는 이러한 基本配置를 整然히 나타낸다고는 보기 힘든 것이어서 南北軸을 中

心으로 建築物이 配列되나 東·西 및 中央의 三개軸을 갖고 非對稱的으로 配置되어 있다. 다만 中央軸線上에는 南에서부터 外朝·內朝·燕朝(寢殿 등)를 차례로 두어 前朝後寢의 制를 따랐고 東·北쪽에 別途의 東宮을 두고 그 앞에는 造園空間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같은 配置는 新羅時代의 本宮과 雁鴨池·臨海殿과도 比喩되어 研究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宮闕建築은 時代와 地形에 따라 建築物配置 및 空間構成에 있어 變化發展되어 왔다. 그러므로 統一新羅時代의 宮闕建築을 研究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모든 基本的 資料와 時代的 變遷狀況을 結付시켜 研究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더우기 이 時代의 宮闕로 남아있는 것은 全無하고 다만 몇개의 遺址만 남아있으므로 이 時代 宮闕建築의 全體 配置 및 規模와 그 特性을 論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時代의 宮闕에 關한 文獻的 調査와 發掘調査된 遺蹟의 研究로써 性格의 一部나마 論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本論

(1) 統一前의 王京과 宮闕

新羅는 赫居世를 始祖로 하는 조그만 部族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斯盧가 核心이 되어 出發, 四세기 後半부터는 國家體制를 갖추게 되는데 이 時期에 奈勿麻立干(三五六~四〇二)이 王이 되어 洛東江 동쪽의 慶北一帶을 支配하는 大部族聯盟體를 形成하였다. 그러다가 智證王(五〇〇~五一四)代에는 國號를 新羅라 부르고 드디어 王權制를 確立하게 된다. 이렇게 三國 中에서도 늦게 일어난 新羅는 文武王代에 三國을 統一하고 찬란한 傳統文化를 營爲하게 된다. 그리고 建國以來로 一〇〇〇여년 동안 首都를 慶州 한곳에만 定하였음이 獨特하다 하겠다.

慶州는 盆地로 形成되어 平地에 位置하고 있는 現市街地를 中心으로 동쪽에는 明活山, 서쪽에는 玉女峰·仙桃山(西岳)이 있으며, 남에는 金

鰲山(南山)이 놓이고 北에는 金剛山이 있다. 그리고 東南쪽 平野의 중간에는 狼山이 놓여있다. 또 이들 山 사이로 흐르는 냇물은 그 주위에 河川을 이루어 北에는 關川(北川)、남쪽에 蛟川(南川)、서쪽에 西川이 흘러 이들은 西川을 통하여 北流하는 兄山江을 이루어 東海岸 迎日灣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最初로 宮室을 이룬 것은 『三國遺事』의 二聖降誕說에 「營宮室於南山西麓(今昌林寺)」라고 되어 現在 南山 서쪽에 있는 昌林寺址임을 알 수 있는데 『三國史記』 新羅本記 第一 居西千二十一年에 「築京城。號曰金城。」이라 하고 또 『東京雜記』에도 「有府東三里 赫居世二十一年 甲申 築京城號曰金城 土築周二千四百七尺 二十七年 己丑 營宮室於金城」이라 하였다. 결국 『三國遺事』의 記錄은 居西千이 임금으로 推戴받기 전에 居處하던 곳이고 正式의 宮室은 역시 그 후에 쌓은 金城이라고 推測되는데 『三國史記』 地理地에는 「婆娑王二十二年。於金城東南築城。號月城或號在城。周一千二十三步。新月城北有滿月城。周一千八百三十八步。」로 記錄되어 이때의 金城은 瞻星臺 附近 북쪽에 치우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자아낸다.

最近에 제작된 航空攝影圖를 보면 다른 곳보다도 이 附近에 坊里區劃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도 그 心證을 갖게 하는 要因이 되고, 또한 文獻에 의하면 瞻星臺가 宮안에 있었음을 示唆해준다. 즉 圃隱 鄭夢周의 詩에 「瞻星臺元月城中、玉笛聲含萬古風、文物已隨羅代盡、嗚呼山水古今同」(월성안에 청성대 우뚝한데 옥적소리에 만고의 바람도 머금고 문물은 이미 신라대에 따라서 다하였고. 아아! 산천만은 고금이 같구나.)라고 되어 月城內에 있었음을 말하고 또 西川 魚世謙의 詩에는 「太史觀天候列星、崇臺百尺軼層城、紫霄一望災祥著、黃道終嗟日月頃、尙有金烏朝送影、更無玉漏夜傳聲、登臨且莫看雲物、故國令人解愴情」(태사가 하늘을 보고 못별을 바라본다. 백적의 높은 데에 층층 성에 솟아올라 우황님 하늘 한번 바라보면 재앙과 상서가 드러난다. 황도—해 가는 길, 혹은 임금이 다니던 길—에, 마침내 슬프다 일월이 질우어 아직도 아침

마다 그림자 보내는 금가마귀(해)가 있는데 밤에 소리를 전하는 옥루는 다시는 없고 올라 다다르며 구태어 운물—임금이 觀臺에 올라 천공의 자연현상을 적는 것—을 쓰지 말 것이니 옛나라에서 사람에게 슬픈 정만 자아내게 하노니라)하였고 또 秋琴 姜瑋의 詩에는 「半月城平漲綠蕪、天中突兀玉臺孤、衣冠花草銷沉地、刺眼斜陽認故都」(반월성이 푸르고 거칠게 퍼지는데 하늘에 우뚝 솟은 옥대만 외롭고, 양반과 궁녀는 다 사라진 자리에, 눈 따짐게 비치는 기운 별에 옛 서울 알아보네)라 하여 이들의 詩에는 宮과 이 瞻星臺의 關係를 잘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新羅初期의 都邑은 이 金城과 月城을 中心으로 發展되어 『三國史記』에 있듯이 慈悲麻立干 十二年(四八七)에 「定京都坊里名。」이라 되어 당시 市街의 整備象을 알 수 있다. 또 智證王 十年(五〇九) 「置京都東市」라고 하여 市街를 점차 동쪽으로 擴張하면서 法興王 때부터는 佛敎를 받아들여 皇龍寺를 宮 동쪽에 세우고 이것이 동쪽 市街의 中心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都城의 防備는 高句麗의 長安城이나 百濟의 泗沘城과 같이 市街全體를 둘러쌓은 羅城을 두지 않고 前述한 바와 같이 地理를 利用、市街를 中心으로 市방에 山城을 쌓아 有事時 이곳에 避身하여 敵과 싸우게 한 것이다. 지금도 그 遺址가 남아있는 南山城·明活山城·仙桃山城 등은 이런 예이다.

宮闕에 대하여 이미 기술했거니와 『三國史記』에 의하면 그 후에도 沾解 尼師今 三年(二四九)에 南堂을 짓고 眞平王 때(五八五) 大宮、梁宮、沙梁宮、三宮을 造營하였음을 알 수 있고 『遺事』에 眞平王은 內帝釋宮(天柱寺)을 세웠다고 記錄되어 있다. 또 眞聖王 때에는 百官의 賀禮를 받던 朝元殿이 있었음을 『史記』의 記錄으로 알 수 있다. 이들 初期의 宮室은 비교적 儉素하게 造營되었던 것으로 推測된다.

二、統一後의 王京과 宮闕

月城과 金城、그리고 滿月城을 中心으로 한 王都 즉 市街는 統一新羅

時代에 이르러 그 區域을 擴張하면서 皇龍寺를 中心으로 그 西北과 西南, 그리고 浪山사이에 이르는 東南地域이 盛況을 이루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理由는 이미 동쪽으로 擴張한 市街中心에 皇龍寺를 세우고 이곳에 統一念願의 象徴인 九層塔을 세워 드디어 統一을 成就하였으며 統一直後 臨海殿을 지어 君臣이 향연을 베풀었다는 것 등을 보아가히 짐작이 간다. 또 市街는 宮城 西北과 그 남쪽 蚊川 건너까지 뻗어 日精橋와 月精橋·孝不孝橋, 그리고 西川에 鬼橋 등이 通行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것도 알 수 있다.

이 때에는 이미 井田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 『東京雜記』와 『東國輿地勝覽』에 「新羅井田遺基尙存」이란 記錄과 또 現在 尙 남아있는 대부분의 區域의 一邊이 三六〇~四六〇 東魏尺 方形으로 區劃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證明하는 것이다④. 즉 航空撮影한 圖面에 의하여 方形區劃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이 皇龍寺址를 中心으로 南東쪽 內東과 그 서쪽 및 西北쪽, 그리고 邑城址를 中心으로 한 周圍 또 雁鴨池北쪽과 味鄒王陵을 中心으로 한 周圍 등이다.

그리하여 『史記』 神文王條에 「九年……秋閏九月……王欲移都達句伐。未果。」라 하여 王都를 達句伐로 옮기려 하였으나 義洲의 忠告로 중지하였다. 하며 따라서 이곳에서 都市는 擴張되어 盛況을 이룬 것이다. 『三國史記』 憲康王條에 「六年(八八〇)……九月九日。王與左右登月上樓四望。京都民屋相屬。歌吹連聲。王顧謂侍中敏恭曰。孤聞今之民間覆屋以瓦。不以茅。炊飯以炭。不以薪。有是耶。敏恭對曰。臣亦嘗聞之如此。因奏曰。上即位以來。陰陽和。風雨順。歲有年。民足食。邊境謐靜。市井歡娛。此聖德之所致也。……」(왕은 좌우신하와 더불어 월상루에 올라 사면هل 바라보니 서울에 민가가 즐비하고 풍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왕은 시중 민공을 돌아보며 「내가 들으니 지금 민간에서는 지붕을 기와로 덮고 짚을 쓰지 아니하며 밥을 짓되 솥으로 짓고 나무를 쓰지 않는다 하니 과연 그러한가?」하고 물으니 민공은 「신도 역시 그와 같이 들었습니다.」하고 따라서 「상감이 즉위한 이래 음양이 고르고 풍우가 순조로워 해마

다 풍년이 들고 백성은 먹을 것이 넉넉하며 변경은 평온하고 시정은 안락하니 이는 모두 성덕의 소치입니다.」라고 대답했다.……)

『史記』 地理志(雜志第三)에 보면 처음 王都의 規模가 記錄되었는데 「王都長三千七十五步。廣三千一十八步。三十五里。六部。國號曰徐耶伐。或云斯羅……」라고 되어있고 또 「遺事」에 「新羅全盛之時、京中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一千三百六十坊、五十五里、三十五金入宅(言富潤大宅也)」라고 되어있어 적어도 人口 五〇萬이 넘었음을 示唆하는데 이는 민간이려울 정도이다.

이 외에도 『三國史記』에 神文王 五年 三月에 二小京 즉 南原小京과 西原小京을 設置하고 여러 고을의 住民을 이곳에 옮기어 살게했다. ⑤ 또 統一新羅의 中央集權체제가 차차 強化되고 모든 文物制度가 發展함에 따라 三二代 景德王 一六년에는 三小京을 增設하여 五小京을 두었는데 이것을 들면 南原小京(現 南原)·西原小京(現 淸州)·北原小京(現 原州)·中原小京(現 忠州)·金海小京(現 金海)이다.

한편 이 時代의 宮闕로는 이미 記述한 月城 以外에 여러 宮이 여러번의 重修와 增築으로 이어나온 듯 하며 특히 『三國史記』 文武王條에는 「十四年(六七四年) 二月。宮內穿池造山。種花草。養珍禽奇獸」(궁내에 연못을 파서 산을 만들고 온갖 화초를 심어서 진기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라 하고 또 同 十九年에 宮闕을 重修하고 東宮을 創建하였음이 記錄되어 있다. 즉 月城 東北部에다 唐 長安城의 禁苑을 모방하여 雁鴨池를 만들어 巫山十二峯을 본딴 造山을 하였으며 臨海殿을 세워 君臣이 宴樂하고 외국使臣을 영접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唐서 온 願堂은 「山之上兮珠宮具闕黃金殿 山下之兮千里萬里之洪濤」라고 시를 지어서 그곳이 華美함을 칭송하였다⑥.

이 時代에 文獻에 나타난 宮闕建築의 이름을 들면 다음과 같다. (방점·필자)

- 文武王 十七年(六七六)에 壤宮을 지음.
- 文武王 十七年(六七七)에 講武殿 南門에서 활쏘는 것을 구경함. 左司

祿館、永昌宮盛典을 돌.

○同王十九年(六七九)에 東宮을 지었다.

○同王二十一年(六八一)에 右司祿館을 돌.

○神文王二年(六八二)에 神宮에 祭祀함.

○孝昭王七年(六八七)에 祖廟에 祭祀.

○孝昭王六年(六九七) 臨海殿에서 잔치함.

○孝昭王七年(六九八)에 崇禮殿에서 日本사신을 引見함.

○聖德王十六年(七一七)에 新宮을 創.

○孝成王三年(七三九)에 善天宮이 낙성됨.

○景德王七年(七四八)에 永明新宮으로 太后가 移居함.

○元聖王三年(七八七)에 萬波息館을 內黃殿에 保管함, (『貴事』)

○昭聖王(八〇〇) 瑞蘭殿의 문말이 날아감.

○哀莊王二年(八〇二) 太宗과 文武大王을 모신 二廟와 기타 五廟를 세움.

○憲德王三年(八一二)에 平議殿에 낙성.

○同王十四年(八二三)에 月池宮에 入處함.

○景文王十四年(八七九)에 月正堂을 重修.

그 외에도 元曉大師와 瑤石公主와의 傳說이 담긴 瑤石宮이 遺事에 기록되어 있고 其他 『史記』 百官志나 다른 文獻에 나오는 것으로는 古奈宮·穢宮·會宮·靑淵宮·屏村宮·南下所宮·北宮·積板宮·城南離宮·鮑石亭·同禮殿 등이 있고 또 遺事, 皇龍寺丈六條에 보이는 龍宮이 있으며 그의 建物로 臨海門·仁化門·北門·歸正門·玄德門·武平門·遼禮門·月上樓·望恩樓·鳴鶴樓·鼓樓·庫門·的門·靑陽樓·望德樓 등이 있는데 이들의 位置는 지금 알수없고 다만 月城과 鮑石亭, 그리고 臨海殿址(未確認), 雁鴨池 등이 遺址로 남아있다. 또 一九三七년에 發掘調査된 慶州 城東里 建物址가 알려졌을 뿐이다.
그러므로 本考에서는 이 알려진 遺積을 中心으로 論하여 보겠다.

1. 半月城

月城은 이미 記述했듯이 <婆娑尼師今二十二年(一〇二) 봄에 城을 쌓고 月城이라 부르고 秋七日 王이 移居했다>는 『三國史記』 記錄 외에도 몇개의 記述을 들어보면 『史記』 地理志에 <婆娑王二十二年에 金城東南에 城을 쌓고 이름을 月城이라 하였다. 혹은 在城이라고도 하였는데 周圍가 一千二十三步였고 新月城 북쪽에 滿月城이 있어 周圍가 一千八百三十八步...云云>하였고 또 <孝成王三年에 여우가 月城宮 안에서 개에게 물려 죽었다>는 記錄이 보이며 『東京雜記』에는 <月城은 府의 東南五里 婆娑王十二年 辛卯에 쌓았다. 形象이 半月 같아서 불인 이름이다 在城이라고도 부른다. 흙으로 쌓았는데 둘레가 二千二十三步인데 輿地勝覽에는 둘레가 三千二十三步라 하였다. 儒禮王七年(二九〇)경에 큰 洪水가 나서 月城이 무너지자 八年 辛亥(二九一年)에 補修하여 세웠다. 昭智王九年(四八七) 丁卯에 지붕을 하고 十年 戊辰(四八八年)에 이곳에 이사하고 살았다>고 하여 그 創建年代도 서로 다르고 또 둘레의 길이도 각각 다르다.

『三國史記』는 高麗 文宗 때(一〇七五)에 著述된 것이고 『東京雜記』는 朝鮮 顯宗 때(一六六九)에 刊行한 것을 그 후 여러번 再刊하였으나 『東國輿地勝覽』도 朝鮮時代에 刊行된 것이니 時代가 서로 달라 그동안에 變動된 것이 아니면 誤記로 생각되나 『三國史記』가 가장 오래된 記錄이고 比較的 事實을 말한 것이라 생각되어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
現在 月城址는 慶州市 仁旺洞에 있어 南山 동쪽에서부터 北流하는 蚊川이 굽이쳐 半月狀을 이룬 곳이다. 그 주위를 살펴보면 東北側에는 雁鴨池가 놓이고 西北側에는 瞻星臺와 奈勿王陵, 鷄林 또 西便에 鄉校가 있고 南쪽 蚊川에는 西로부터 現 司馬所 앞에 月精橋址, 그 옆에 日精橋址, 그리고 동쪽에는 孝不孝橋址가 놓이고 그 남쪽 蚊川을 건너 좁은 路에서 南山西麓에 昌林寺址와 鮑石亭址가 있다.
城의 規模는 東西 길이 약 八六〇m, 南北 폭 四八〇m이며 城은 흙으로 덮여 있어 雜木이 무성히 났고 城 높이는 약 一〇m?一八m 정도로 불

規則的이며 몇 군데 봉우리같이 높은 곳이 있다. 城內에는 平平한 평지가 있어 礎石이 一部 露出되어 있고 北쪽에 石水庫가 있는데 花崗石으로 쌓였고 그 入口 楣石에는 「崇禎紀元後 再辛酉 秋八月移」라 하여 朝鮮時代에 옮겨진 것이다.

城의 四方에는 四方門이 있어 城을 드나들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正門은 西端의 歸正門으로 생각되고 그 외에 南門・仁化門 등 많은 門이 있었다. 城內는 넓은 平坦地이고 一部 잔디를 심고 있다. 여기는 王宮과 政務廳이 있었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처음 南堂이라든가 朝元殿 등이 重要な 建物로서 眞德王 五年(六五一)년에 王이 朝元殿에 남서어 百官의 正質을 배풀어 賀正의 禮를 처음 시작하였다. 統一直後의 文武王은 十九年(六七九)에 宮闕을 重修하여 壯麗함이 極에 달하였다 한다. 그 후의 記錄으로는 東宮・崇禮殿・永昌宮 등의 이름이 보인다. 그리고 新羅末 憲康王 六年(八八一)에 王이 左右의 侍臣과 月上樓에 올라 方望을 바라본 記錄이 있다^⑧

現在 이 月城의 크기는 實測한 바로는 前述 것과 같이 東西 길이 八六〇m, 南北幅 四八〇m가 되어 그 넓이가 약 一八三,六〇〇m²(五五,六〇〇坪)이 된다. 一九七六年 三月부터 一九七七年 五月까지 雁鴨池의 發掘調査에 이어 臨海殿과 月城과의 關係를 究明하기 위하여 一九七九年과 一九八〇年 二年에 걸쳐 月城 東北側에 있는 南門址를 文化財研究所에서 發掘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出入을 하던 東北入口를 먼저 發掘한 바 推定 東門址가 露出되었다. 門은 城 위 높은 곳에 位置하여 外部에서부터 동쪽으로 기울어진 北向으로 되어 正面이 一間, 側面이 二間인 平面임을 알 수 있었다. 남아 있는 礎石으로 보아 柱間은 正面이 四,七m(一六唐尺)이고 側面도 같은 四,七m를 二間으로 나누어 唐尺으로 八尺×二間으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基壇은 前面이 길이 六,七m, 側面 六,七m인 正四角形의 平面을 이루고 있다. 基礎로는 東側面에 礎石 三個와 西南귀에 礎石 一個 그리고 積心石이 남아 있고 西北側에는 짝여서 없어졌다. 礎石은 一邊 약 七

〇cm 되는 角石上面에 圓形柱坐를 하고 있는데 각 컷기둥 礎石에는 고맥이를 東西邊을 따라 內向하여 있고 東邊의 中央礎石만은 四角形 柱坐를 갖고 고맥이 컷이 門쪽으로 흔적이 보이고 있으며 바깥쪽에는 柱坐線이 明確하지 않다. 이 中央礎石 內側에는 信枋石과 같이 생긴 길이 一,〇m 幅 四五cm 되는 平平한 加工石을 한데 붙여 놓았으며 그 반대편에도 흔적이 있다. 또 門의 左右兩邊에는 고맥이 壁을 올려 쌓은 흔적을 礎石과 中央礎石 사이에 놓인 塼의 遺構로 미루어 알 수 있다. 基壇의 邊은 長臺石과 大理石이 混用되어 있고 西北쪽 귀에는 隅石의 地臺石도 잘 남아 있는데 內部側 基壇邊 中央에는 幅 〇,三m, 長 三,三五m 되는 디딤돌을 無文塼으로 整然히 깔았다. 基壇의 內部上面은 自然石이 흐트러져 있어 基壇築土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推測된다.

이 基壇 石列의 높이와 비슷한 地盤에서 東側 中央礎石 外邊에 붙어 東으로 뻗은 壇장址가 露出되었는데 幅이 一,四m였다. 이 壇장지 兩邊에는 自然石으로 外面이 바르게 整列되어 있다. 그 반대편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부분은 流失되어 確認할 수 없었다.

基壇의 土層調査에 依하면 基壇上面에서 約 〇,八m 밑에는 自然石과 부토를 混用하여 다졌고 그 밑으로는 土築城의 主質土로 생각되는 黑褐色 粘土로 되어 있고 그 周圍에서 木炭과 燒土가 나오고 있어 火災를 당하였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 門은 礎石의 柱坐形態로 보아 컷기둥은 圓柱로 되어 있었고 板門이 달리는 中央기둥은 四角기둥을 하여 지금의 建物 正門架構와 비슷하였음을 알 수 있고 前面이 一間으로서 單層을 한 기와집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음 이 門址 東便 一〇여m 떨어진 城廓을 調査하기 위해 橫斷面 調査를 하였는데 築城面에서 不過 〇,四五m 地下에서 自然石列이 城의 길이를 따라 놓이거나 또는 無秩序하게 散在하여 築城할 때 補強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밑 外廓 쪽으로 넘직한 自然石을 몇 段씩 켜로 쌓아 城廓을 따라 整列한 石段이 나왔고 그 밖에는 물이 나는 地質로 되고 여기서 다시 一〇여m 外廓으로 떨어진 곳에 마주보는 石築이 같은 方式

으로 쌓여있다. 이 兩石築의 間隔은 동쪽으로 가면서 차츰 넓어져 最高二〇여 m까지 되고 門址 앞 外部에서는 약 一,五m까지 좁아져 長一〇m가량 유지되며 여기서 西쪽으로 가면서 다시 넓어진다. 그러므로 이것은 三國時代에 城周圍에 흔히 施設한 周濠(敵을 防禦하기 위한 못)로 判斷되는 것이다. 이 周濠는 東西로 길이 121m까지 部分確認하였다. 또 門址 北側에서 雁鴨池를 向하는 方向으로 深索 口를 넣어 調査한 바 表土面 地下 一,二m 되는 깊이에서 東北으로 僻은 木冊을 發見하였는데 이 木冊은 약 一,五m 간격으로 末口 약 一五cm(기둥 중에는 八角柱도 있었음)되는 기둥을 세우고 옆으로 다시 原木를 차곡차곡 가로대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水路를 위한 防册으로 생각이 되나 이것이 어디로 連結되는지는 確實치 않다.

城廓은 前述했듯이 土石을 混用하여 쌓은 듯 하지만 그 基底外廓은 自然板石을 三~四段 쌓아 잘 整列된 部分도 있었다.

結局 이 月城은 王城중에서도 가장 中心이 되는 城으로 다른 宮과는 일단 隔離을 하여 防禦가 잘 되어있는 宮室임을 알 수 있었고 一九八〇年 雁鴨池 整備工事와 함께 實施한 駐車場發掘調査에 의하여 雁鴨池 주변의 宮闕建物은 月城의 東北 수 一〇m까지 接近하여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臨海殿(雁鴨池)

『三國史記』에서 臨海殿과 關聯있는 記事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文武王 十四年(六七四)二月「宮內穿池造山. 種花草. 養珍禽奇獸」(대결안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진귀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

○文武王 十九年(六七九)八月「創造東宮. 始定內外諸門額號」(동궁을 창조하고 비로소 안팎 여러 문의 액호를 정하였다.)

○孝昭王 六年(六九七)九月「宴羣臣於臨海殿」(임해전에서 여러 신하와 향연을 베풀었다.)

○景德王 四年(七四六)七月「葺東宮」

○同王 十九年(七六〇)二月「宮中穿大池」

○惠恭王 五年(七六九)三月「燕羣臣於臨海殿」

○昭聖王 二年(八〇〇)四月「暴風折木蜚瓦. 瑞蘭殿簾飛不知處. 臨海仁化二門壞」(폭풍이 나무를 꺾고 기와를 날렸다. 서란전簾이 날아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임해·인화 두 문이 부서졌다.)

○哀莊王 五年(八〇四)七月「重修臨海殿. 新作東宮萬壽房」

○文聖王 九年(八四七)二月「重修平議·臨海二殿」

○憲安王 四年(八六〇)九月「王會羣臣於臨海殿」

○景文王 七年(八六七)正月「重修臨海殿」

○憲康王 七年(八八一)三月「燕羣臣於臨海殿. 酒酣. 上鼓琴. 左右各進

歌詞. 極歡而罷」(임해전에서 여러 신하와 잔치하여 술이 취하자 왕은 거문고를 타고 좌우는 가사를 지어 올리며 매우 즐기고 파하였다.)

○敬順王 五年(九三一)二月「置宴於臨海殿. ……」

『東國輿地勝覽』에는 「雁鴨池는 天柱寺 北에 있으니 宮內에 못을 만들고 돌을 쌓아 산을 만들어 巫山十二峯을 본따고 花草를 심고 珍禽을 길렀는데 그 西에 臨海殿基가 있어 礎砌가 아직 논밭 사이에 있다」^⑨라고 하여 文武王이 관연못이 雁鴨池이고 이 西쪽에 있는 것이 臨海殿이라고 記錄하였다. 또 『輿地圖書』 慶尙道慶州堤堰에는 「雁鴨池 在府東五里一千二百十尺深三尺」이라 하였다.

그러나 위의 『三國史記』에 보이는 바와 같이 文武王 一四년에 관못과 景德王 一九년에 관宮中的 큰 못은 각각 어떻게 다른지, 또는 그전에 있던 「宮東池」 「宮西玉門池」 등과는 어떻게 다른 곳인지 알 길이 없다.

『東國輿地勝覽』의 記錄이 사실이다라고 東宮과 臨海殿과의 關係는 어떠한지도 確實하지 않고 다만 이때의 新羅王宮位置로 보아 東宮의 位置로 적합하였고 또 臨海殿과 東宮의 記錄이 함께 나온다는 점 등으로 이것이 東宮이었을 것이라는 推測을 낳게 할 뿐이다.

雁鴨池는 慶州市 邑城址에서 東南과 月城東北에 位置하며, 연못의 면적이 약 一五,六五八㎡ 되는 遺蹟인데 一九七五年 發掘調査以前에는 그

주위에 수양버들이 심어져있었고 東側의 못 쪽으로 약간突出한 護岸上에는 正面五間, 側面二間인 後代의 樓亭이 있었으며 또 西쪽에는 花崗石의 水漕가 一部露出되어 있었다.

一九七四年이 못의 浚深工事が 시작되자 意外로 많은 邊物이 쏟아져 나왔으므로 그해에는 工事を 中止하고 다음해 三月부터는 皇南洞 九八號古墳을 發掘하던 文化財 研究所發掘團이 本格的으로 發掘調査에 着手하였다. 이 調査에 따라서 먼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못 護岸의 石築이었다.

(1) 연못

一九七八年 文化財管理局에서 發刊한 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에 의하면 護岸石築의 外周 길이는 一,〇〇五 m였고 연못의 크기는 東西로 二〇〇 m, 南北으로 一八〇 m 안에 조성되었다 한다. 연못의 形象은 마치 大陸과 大洋을 象徴하듯이 護岸의 曲線平面과 심의 造成 등으로 構成하여 調和를 이루었는데 南岸邊은 거의 直線을 이루고 또 西岸은 人工的으로 造成된 長臺石築의 基壇形 方形址가 그 一部를 못 쪽으로 突出시켜 五個所의 建物址를 이루도록하고 이 建物址 사이는 直線의 護岸線으로 方向을 바꾸며 연결되어 變化를 주는 平面을 갖고 있으며 北岸은 比較的 완만한 曲線을 나타내며 東岸은 마치 우리나라의 西海岸을 연상시키는 屈曲의 護岸線을 나타내고 있다. 또 연못의 內部에는 크고 작은 섬이 셋 있는데 東南쪽에 놓인 섬이 제일 커서 그 面積이 一,〇九四 m²이고, 다음 北西쪽에 있는 것이 五九六 m²가 되며 中央部에 놓인 것이 六二 m²로서 제일 작다. 이들의 모양은 自然的으로 생긴 섬과 같아 護岸線은 자연스럽게 屈曲되고 中央의 섬도 自然스러운 橢圓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屈曲을 自然스럽게 둔 護岸石은 石築一段의 幅이 약 一五 cm ~ 二四 cm 정도로 거칠게 加工된 自然石을 널찍널찍 安全感있게 쌓아 위로 올라가면서 뒤로 물렸는데 그 句配가 약 三〇% 이상의 安全句配를 두고 있다. 이러한 石築方法은 쌓은 林料나 手法이 모두 新羅의 石城과 類似的한 것이다.

남아있는 石築의 높이는 西岸에서는 약 一,二 m 높이의 큰돌로 쌓은

段과 그 위에서 뒤로 물려 높이가 一,五 m의 제 2단을 두고 있다. 그러나 前述한 建物基壇의 突出部는 밑에서부터 巨大한 自然石을 二~三段面 마르게 쌓고 그 위에서 加工된 長臺石을 쌓는 手法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대부분의 石築이 倒壞되어 연못 밑바닥에서 礎石을 비롯한 많은 石材가 나왔다 한다.

北岸에서도 역시 幅이 약 一五 cm ~ 二〇 cm 되는 거칠다듬한 自然石을 쌓아 護岸을 이루었는데 發掘當時 石築의 높이는 약 一,四 m 내외가 가장 잘 남아있는 部分이었다고 한다. 또 護岸上面에는 造景을 위한 自然塊石을 드문드문 박아 놓고 護岸石築 基底部 앞에는 直徑 약 〇,六 m 되는 自然石 괴임을 一,五 m 내외의 간격으로 配列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심을 위시한 다른 屈曲된 石築앞에서도 發見되었으나 이것이 어떤 機能을 하는 것인지는 알수 없다. 다만 三國時代의 무덤 石築앞에 있는 괴임石과 類似한 構造的 機能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 여기서 特別히 發見된 施設은 연못물의 排水口인데 北岸 中央部의 丁字로 꺾인 部分 모서리에서 東側으로 길게 陝谷路를 만들어 排水되게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水面을 調整할수 있게 하였다. 出口는 花崗石板에 구멍을 뚫어 둥근나무 베기를 박아 물의 흐름을 막게 하였다. 또 北岸과 東岸이 만나는 연못의 東北隅는 陝谷으로 깊고 좁게 끌고 들어가 만나는데 여기서는 階段狀構造로 地面과 連結되어 배를 대는 船着地였을 것으로 推測된다.

東岸에는 크고작게 突出된 半島를 갖고 있는데 石築을 쌓은 方法은 北岸과 같이 一段으로 쌓아올렸는데 靈出된 높이가 약 一,五 m였다. 특히 東岸의 南端에는 入水口가 놓이는데 巨大한 自然石으로 段을 이루며 쌓아올려서 물이 떨어져 들어오면서도 여러 돌에 부딪쳐 물안개를 일으키며 폭포소리가 나도록 計劃하여 그 韻致를 더하였음을 알수 있다. 이 위에서는 入水路를 石材로 좁게 마련하여 물을 유도하고 그 中途에는 奇異한 形象의 石漕를 二段으로 받아 넘기게 하였는데 이 水漕는 曲線形을 이루어 아름답다.

南岸은 거의 直線을 이루고 있는데 石築의 높이도 池底面으로부터 1m 내외였고 石築의 上面에는 部分的으로 自然石을 묻어 역시 造景을 위한 方式으로 보인다. 護岸石築의 뒷채움에는 石材를 쓰지 않고 粘土로 뒷채움하였다. 또 이 護岸線 上面에서 地面쪽으로 완만하게 傾斜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川石列을 東西로 三列을 묻어 沙汰를 防止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三個의 頂은 그 크기나 形態는 각기 다르나 그 上面들을 모두 山과 같이 높여서 奇岩怪石을 布石함으로써 景觀을 아름답게 造成하였다. 이 중 西北에 놓인 大島와 東南에 있는 中島는 護岸과의 距離가 불과 4m ~ 6m였다. 入水口로 들어온 물은 排水口에 도달하기 전 이들 頂을 끼고 돌아 물의 循環이 잘 되게 했다. 연못의 바닥은 갯벌과 粘土層으로 되어 있고 또 石築은 灰褐色의 粘質土가 섞인 흙으로 사출을 쌓았는데 强灰와 같이 단단히 굳어져 있었고 外面石築 뒤에 다시 한두개의 石築을 쌓아 三重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쌓은 것인지 아니면 補修時 外部에 다시 한번 쌓은 것인지 確實치 않다.

이렇게 하여 이 연못은 屈曲과 直線, 또 高底의 石築段·造景石 등 變化 있는 靜的 構成과 더불어 落水와 瀑布소리, 물안개의 움직임, 動物의 活動 등 動的인 構成이 調和를 이루어서 바라보는 位置에 따라 時時刻刻 景觀이 變하는 極致를 이룬 宮闕建築造景이다. 더우기 이 周圍에 놓인 소위 巫山十二峯의 언덕에는 갖은 아름다운 草花와 나무를 심어 그 景觀을 더 한층 돋아준다. 이러한 造園을 背景으로 세워진 宮闕建築은 그 技術이나 意匠上으로 이와 못지않게 아름다웠을 것이다.

(2) 建物址

建物址는 前述한 바와 같이 護岸 西便에 第一에서 第五建物址까지 五개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고 發掘前부터 地上에 靈出되어 있는 石水路의 進行으로 보아 이와 聯關되는 西側과 南側의 建物址를 豫想할 수 있어 發掘調査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石水路는 護岸 西南의 岫 떨어져진 곳에서 시작되어 西·南의 護岸線과 類似한 向으로 方

向을 꺾어가며 西北쪽으로 빠져나갔는데 끝과 中間에 流失된 部分이 있다. 水路는 花崗石으로 口幅이 약 30cm이며 깊이가 15cm 정도 되는 데 水溝를 통물로 깎아 만들었고, 그 길이는 1m ~ 2m 정도로 一定치 않다. 이것은 排水口로 알려졌지만 水路中間에 맨홀과 같은 水漕가 있어 물을 퍼내어 쓸 수 있게 되어 自然水의 排水 兼 用水施設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西側 建物址에서는 연못의 西南隅에서 서쪽으로 약 20m 떨어져 前面七間、側面 五間의 建物址가 確認되고 이 建物의 南北軸線上으로 북쪽에 前面 五間、側面 五間의 中心建物址가 있고 또 그 위 같은 軸線上 北쪽으로 또 다른 五間×五間의 建物址가 露出되었다. 北側に 놓인 이 五間建物의 양 옆에는 距離를 좀 두고 橫軸線上에 맞추어 놓인 長方形 建物址가 있는데 東側의 것은 바로 연못 第二護岸 建物址가 되어 前面 六間 側面 三間의 建物이었음을 推測할 수 있었다. 그 西便의 것은 五間×三間의 建物址로 推定되었고, 이 위 北便에 거리를 두어 다시 三間×四間의 建物址와 이것과 한쪽으로 연결되면서 北으로 뻗어 第四護岸 建物址를 이루는 遺蹟이 나타났다.

또 護岸의 南側에는 護岸南邊에서 약 30m 떨어져 東西로 길게 뻗은 建物址가 있는데 이 中央部에는 正方形에 가까운 三間×三間의 建物址가 있고 이 建物址 西北쪽 모서리에 重疊된 또 하나의 規模가 작은 三間形 遺構가 露出되어 時代를 달리 하는 建物址임을 알 수 있었다. 이 建物址의 左右 兩側에는 東西軸을 맞추어 길게 뻗은 複廊式的 二個 建物址가 있었는데 東側의 것은 一〇間이 連長되어 그 中央南邊에는 다시 남쪽으로 뻗은 單廊과 같은 建物址와 連結되는 듯 하고 東端南側に 또 하나의 單間 建物址와 連結되었다.

또 西便에 있는 復廊址는 八間으로 되어 있으며 그 西端에서 약간 떨어져 北側に 있는 護岸第一 建物址에서부터 連結되어 南向하여 내려온 單廊과 近接하고 있다. 이 南岸을 따라 東西로 뻗은 建物址 東端에서 좀 떨어져 東南쪽에 치우쳐 五間×五間의 建物址 二個가 東西로 약 一

○m의 間隔을 두고 나란히 있었고 그 北側에 이와 관련 여부를 알 수 없는 單間 廻廊址로 보이는 遺構가 東西로 延長되다가 끊겼다.

七間의 西岸南便 主建物과 前述한 第一護岸建物址에서 南向한 單廊과는 側廊으로 連結이 되고 그 反對便인 西便에도 對稱이 되는 흔적이 있지만 毀失이 심하였다.

또 中央 五間建物址에 東西 兩便의 單廊址가 연결됨을 알 수 있었고 이들은 北側에 있는 主建物과도 서로 連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西便 建物址는 南·中·北에 位置한 主建物 三棟을 中心으로 南北軸을 맞추어 廻廊에 둘러져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서 前述한 石水路와 建物址와의 關係를 생각해보면 石水路의 一部가 南岸上 西南쪽에 있고 南北으로 뻗은 東廊址의 東側에서 始作되어 中央建物址 東側廊 앞에서 서쪽으로 꺾였거나 北으로 그 側廊을 貫通하고 다시 側廊 北邊과 東廻廊을 끼고 北便 主建物 앞을 돌아나가 西北으로 빠져 나갔다.

이 石水路는 廻廊과 建物址의 基壇邊에서 바깥쪽으로 약 二m 떨어져 돌아가고 있었으며, 그 上面은 現地表와 비슷한 높이에 있어 舊地表와 도 큰 差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勻配도 北에서 南으로 흐르게 되었다 한다.

一九八〇년 雁鴨池의 南쪽 外廓 現 駐車場 밑을 發掘하면서 前述한 護岸南側 建物址와 關聯이 있는 듯한 建物群址가 發見되었는데 이것은 前記한 護岸南側 主建物址와 南北軸이 거의 같은 線上에서 前者와 柱間거리 약 四五m되는 곳에 前面 四間, 側面 三間의 主建物を 두고 있으며 이 建物 역시 單廊으로 左右가 連結되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서 南接하는 또 하나의 東西로 뻗은 單廊이 놓여 있다.

이 建物址의 北側에는 또 다른 建物址의 흔적이 나왔으나 確實한 規模는 밝힐 수가 없었다. 또 연못 西便 建物址中 南北으로 뻗은 廻廊도 남쪽으로 더 延長됨을 確認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建物址는 現道路線 가까이 接近하여 月城과 相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記述한 建物址는 대부분 積心石, 또는 그 흔적만이 남아 있었

고 柱礎石은 極히 드물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들 中에는 基壇의 長臺石과 無紋磚으로 鋪裝된 鋪道, 建物址와 重疊된 垣牆址 등이 露出되었다.

여기서 主建物址의 規模를 살펴보면 西岸建物址中 南便主建物址는 東西柱間 약 二三m, 南北柱間 약 一三,二m이고 中央主建物址는 東西가 약 一七,八m, 南北이 약 一六m이며 北便 建物址는 東西 약 一五,五m, 南北 약 一五m이며 이 左右 양 옆에 놓인 建物址는 南北柱間 長九,五m만 確認되고 東西로는 一部 毀失되어 全長을 알 수 없었다.

또 護岸南便 中央建物址는 東西와 南北 다 같이 약 十一m였으며 그 東南쪽에 떨어져 있는 二개의 建物址도 이와 비슷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單廊의 幅은 약 三m이다. 또 主建物址를 둘러싼 東西廻廊建物址 中心거리는 北側區域에서 四三m이고 南側區域에서 약 五〇m로 推定되었다. 그리고 南側 主建物址에서 北側主建物址까지의 中心거리는 약 七〇m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三國時代의 작은 規模의 伽藍 一廊과도 비슷한 規模였다. 또 前述한 南岸의 最南端에 있는 四間×三間의 建物址는 東西 약 一〇,七m, 南北 약 七,二m였다.

以上 雁鴨池와 그 周圍의 建物址 遺構에 對해 記述하였는데 과연 이 중에 記錄에 나오는 臨海殿址와 臨海門址 등이 包含되었는지, 또 包含되었다면 어느 것인지 現在로는 알 길이 없다.

(3) 遺物

雁鴨池 發掘調査에서 露出된 重要資料는 遺構 뿐만 아니라 연못 內外에서 出土된 一五,〇〇〇餘點의 貴重한 遺物이다. 報告書에 의하면 이들은 瓦磚類가 五〇%이고 土器類 二〇%, 木材類 一五%, 金屬類 一〇%, 기타 鐵器類 五%이다. 이 중에서도 建築과 關聯되는 遺物은 瓦磚類로서 瓦當·鴟尾·異形瓦·鬼面·紋樣磚 등이 있고 木材類로는 椽木·檐遮·浮椽·平交臺·小累·欄干·椽含·童子柱가 있으며, 또 金屬類로서 金銅製 대문裝飾, 椽木마구리裝飾 등이 있으며 기타 包壁의 殘餘部가 있다. 이 중 重要한 것만을 記述하여 본다.

●蓋瓦類.. 암수의 보통기와 이다.

◎ 암기와 · 보통 平面形態가 사다리꼴로 윗부분이 좁고 밑부분이 넓다.規格은 작은 것이 幅一九, 三cm에서 큰 것 三三cm이고 길이는 二一, 二cm ~ 四一cm이며 두께는 一, 三cm ~ 一, 七cm이다. 바닥의 紋樣은 빗살에서부터 뜻자리形무늬, 또 幾何學的 무늬 등 多樣하다. 特別히 中에 銘文을 새긴 것도 있다.

◎ 솟기와 · 吐手기와와 미구기와와 크게 分類할 수 있는데 그 크기도 多樣하다. 암막새기와와는 앞에 紋樣이 있는 드림새를 넓게 따로 대지 않고 기와 두께를 前面에서 약간 두껍게 하여 唐草紋 등으로 施紋한 것의 初期의 것과 드림새를 넓게 따로 대어 唐草와 寶相華, 또 鳳凰, 天馬 · 飛龍 · 飛天像을 施紋하고 그 周圍에 周緣과 蓮珠를 둘러 쓴 것이다. 솟개새는 주로 蓮花의 文樣을 發展시킨 것인데 初期의 手法으로 百濟型의 周緣上에 蓮珠 없이 蓮瓣을 둘러 쓴 形式이 있는가 하면 內區와 外區를 두어 複瓣 또는 重瓣을 두고 蓮珠를 周緣에 둘러 쓴 形式도 있고 蓮花 外에 寶相華, 가릉비가, 鳳凰 등을 施紋한 것도 있다.

◎ 鵝尾 · 그 모양이 單調롭고 꼬리가 많이 굽어진 것과 兩面에 珠眼을彫출한 것 등이 있는데 皇龍寺址에서 出土된 華麗하고 巨大한 형태에 對比되는 것이다.

◎ 鬼面 · 여기서는 많은 수가 多樣하게 나왔는데 特別히 形像은 洗鍊되고 優雅하여 무섭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다.

◎ 文樣博 · 여러 形式의 種類가 있는데 이 중 寶相華紋을 中央에 두고 그 네 귀에도 彫飾을 하고 周緣에는 蓮花를 列飾하였으며 변두리 面에도 寶相華를 施紋한 것이 있다. 이러한 紋樣은 一九三七年 發掘調査된 城東里 遺蹟址에서도 出土되었고 特別히 遺構도 統一新羅時代의 宮闕址로 推測하는 것이므로 뜻이 있다 하겠다. 特別히 中에서 側面에 「調路二年 漢只伐部君若小舍……」란 銘記가 나와 學界에 關心을 준다.

瓦博類는 이외에도 바래기기와 · 초가리기와 · 橢圓形 솟막새기와 등이 있다.

◎ 木材類 · 重要な 것은 椽包部材의 一部分인 檐遮와 小累 · 서까래 · 浮

椽 · 欄干 등이다.

◎ 檐遮 · 첨차의 部材는 전부 四個가 나왔는데 小檐遮完形 二個, 귀첨차 破損一個, 기타 一個가 出土되었다. 이 첨차는 西便 護岸 第三遺物址에서 出土되었고 全長은 九一, 八cm 幅이 二二, 九cm이며 幅이 一四, 一cm인데 翹頭形으로서 四段의 卷殺를 하여 窄았고 中央下部에 側面으로 보아 幅 一四, 五cm, 高 一〇, 四cm의 홈을 파서 咬을 장으로 되어 있고 첨차上面에는 小累를 中央과 兩端쪽에 각각 한 개씩 놓이게 하고 小累 사이에는 椽眼을 두었고 小累를 咬어 놓을 첨차의 上面에는 經 二, 五cm, 깊이 四, 九cm의 둥근 楕圓形이 파져 있다. 또 檐遮 끝은 전체 幅의 약 1/2인 十一cm까지 直切되어 그 밑에서 窄아 全體의 咬으로 等갈게 굴렀다. ⑩ 이것은 中國 宋代의 技術書籍인 李明仲의 『營造法式』에 直切部가 全體 幅의 1/3되는 것과 相違하지만 四段의 卷殺한 것은 같다. 또 高句麗의 龜甲塚의 壁畫에 나타난 椽包圓의 1/2比와 같지만 그 밑에 一段으로 접은 것은 相違하다 할 것이다. 또 하나의 小檐도 같은 크기와 모양을 하고 있다. 또 다른 귀첨차는 한쪽이 缺損되었는데 첨차端에서 七五, 五cm되는 곳에 윗쪽으로 홈이 패어 있고 이 옆에 한 段 높여 斜角으로 홈이 窄어 있어 이 첨차가 建物平面으로 보아 四五度각도로 彎은 귀椽包임이 틀림없다. 여기서는 檐遮의 幅이 二二, 八cm이며 檐遮端은 三段 卷殺하였다. 또 하나의 첨차는 길이 一四一, 五cm, 幅 二五, 五cm, 高 一四cm인데 護岸第二建物址에서 出土되었다. 咬을 장의 홈은 部材 한쪽에 치우쳐서 建物 內外로 彎은 살미첨차임이 틀림없고 또 幅의 크기가 前紀 檐遮와 다른 것은 서로 다른 建物の 部分임을 알 수 있게 한다.

○ 柱料 및 小累 · 이것은 그 크기로 보아 柱料인지 小累인지 확실하지 않다. 柱料의 크기는 한 邊이 二二, 五cm이고 高이가 一四, 一cm이며 밑 幅이 一五, 八cm, 그리고 밑 幅은 立面으로 볼 때 內反된 曲을 보이고 있으며 그 幅의 高이는 全體 高이의 약 1/3정도이다. 이것은 역시 宋代 『營造法式』과 類似한 比와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양의 柱料나 小累는 統一新羅時代의 多寶塔 欄干 받침 小累나 여기서 出土된 欄干 小

累와도 類似하다. 또 이 柱料와 小累 밑면에는 楸구멍이 있어 檐遮와 固定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까래(椽木)·第二第三建物址에서 出土된 것으로 앞부분만 남아 있는 등근 서까래였다. 末口가 一一、四cm였고 약간의 홈림을 두고 있었다. 또 한개의 破片은 末口가 一一、八cm였고 끝부분 上面에는 平交臺가 놓이는 부분을 약간 짚았다. 또 이와 함께 出土된 角形의 浮椽도 平交臺와 같이 出土되었는데 平交臺에서 반턱걸이로 맞추어지고 있다.

◎欄干·欄干 童子柱와 살대가 나왔는데 童子柱의 높이로 보아 欄干의 높이는 약 六四cm 정도이고 一邊 一一、五cm의 角柱인데 上半部는 안으로 약간 內曲을 두개 짚고 그 위에는 小累를 올려놓았고 下半部는 側面에 楸구멍이 두개 있고 밑에는 堅實한 楸장부를 마련하고 있다.

欄干의 살대形式은 이미 石造物 및 金製品에서 알려져 있고 中國이나 日本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南原 實相寺 百丈庵의 石燈과 三層石塔에서 보이며 感恩寺址 發掘時 出土된 西三層石塔에서 發見된 破損石材에서 볼 수 있었다²⁰.

이외에도 椽舍이 나왔지만 생략한다.

◎金屬類·특히 서까래나 浮椽 또는 昌枋 마구리에 裝飾으로 사용되던 透刻된 金銅製가 一部 나왔는데 이와 類似한 裝飾은 日本의 古代建物에서도 볼 수 있다. 또 門裝飾으로는 鬼面彫刻에 구슬을 연결한 듯한 문고리裝飾과 透釘板에 문고리를 한 裝飾, 그의 童子釘彫飾板, 문꼴 補強 金屬板 등이 나왔다. 이러한 裝飾 외에도 여러가지의 道具가 나왔지만 그 性格은 아직 把握되지 않고 있다.

以上の發掘結果로 보아 當時 宮闕建築의 華麗함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三國史記』 第三十三志 第二屋舍條에 나타나 있는 당시의 建築 規制를 參考하여 본다면 宮闕建築은 그 實長廣이 二四尺을 넘었을 것이고 唐瓦를 쓰고 飛檐은 쓰고 懸魚를 썼으며 金銀과 鑰石의 五彩를 쓰고 研磨한 階段을 쓰고 三重基壇을 썼으며 담장에는 서까래를 걸었고 石灰를 썼고 또 重門과 四方門을 썼을 것이다.

3. 慶州 城東里의 遺構址

慶州 邑城 東里의 北川(闊川) 沿岸에 남쪽으로 붙어 있는데 南으로 南山의 靈峰을 바라보며 月城 正北에 位置하여 芬皇寺 塔塔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前부터 廢寺址로 推定되는 土壇이 있었는데 日帝時 北川護岸工事를 하다가 遺構一部가 露出됨으로서 昭和 一二年(一九三七) 發掘 調査를 하여 그 面貌가 드러나게 되었다. 發掘報告書²¹에 의하면 이 土壇을 中心으로 그 周圍에 많은 建物址群이 露出되었다 한다. 이 建物址는 正南向에서 東으로 約 六度 기울어져서 南向으로 놓여 있었는데 遺構는 大部分 地表下 三〇cm 内外에서 露出되었다 한다.

建物の 配置와 그 規模를 略述하면 土壇으로 불리우는 建物址 B에서 높은 壇을 이루는 基壇 위에 圓形柱坐 礎石 三개가 發掘되었는데 東西 三間 五三尺(一六m) 南北 三間 五六尺(一六、九六m)로 거의 正方形을 하고 있으며 建物中央에 큰 돌이 있었다고 口傳된다. 이 建物址 東·西에는 廻廊址와 連結되는 鋪石道가 있다.

土壇建物址를 中心으로 東西 軸線上에 主要建物址가 配列되어 있는데 이 西側에 中心거리 約 一三九、三尺(四二、二m)에 大殿堂址 A가 있고, 이 동쪽 中心거리 約 一四七、五尺(四四、六九m)되는 거의 對稱되는 곳에 殿堂址의 規模와 비슷한(東西 基壇邊 約 一二五尺、南北邊 約 七七尺) 巨大한 殿堂址 C가 있으며, 이 사이에는 東·西의 廻廊址가 막고 있었고, 여기서 다시 동쪽으로 中心거리 約 一四七、五尺(四四、六九m)되는 곳에 小規模의 殿堂址(四三、六五尺×四三、六五尺) D가 露出되었다. D 殿堂址를 中心으로 南北 軸線上 南쪽에는 中心거리 約 六七、六(二〇、四八m)되는 곳에 三間×二間(東西 基壇 二八、三尺×南北 一九、五尺)의 門址와 북쪽으로는 中心거리 約 七七、九尺(二三、六m)되는 곳에 이와 비슷한 規模로 推測되는 殿堂址 E가 一部 露出되었는데 東、北의 半이 상이 流失되어 確實한 規模를 알 수 없었다 한다.

이 殿堂址 D의 東、西邊 中央에는 側廊이 있고 이 側廊은 東西에 있

는 復廊과 連結되어 있다. 이들 復廊은 북쪽에서 流失되어 끊기고 南쪽에는 門址 一과 連結되어 있다. 또 이의 東南쪽에 약간 떨어져 또 다른 작은 門址 二가 있고 이 門址 一과 門址 二 사이에 空間을 形成하는 石列이 連結되어 있다. 門址 二의 서쪽쪽에 連結된 石列은 殿堂址 C의 南廻廊址 밑으로 뻗어 中途에서 그치는 데 이 南廻廊址는 서쪽으로 繼續되는 듯하며 殿堂址 B, A의 南廻廊과 연결되는 듯하다.

또 殿堂址 B의 北邊에서 약 一·二八尺(三·八 m) 떨어져 建物 南邊의 礎石이 나타나는데 또 다른 殿堂址 F가 露出되었는데 여기서는 큰 礎石 二개만 出土되고 建物址의 形態를 잘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이 西側에는 좀 떨어져서 또 다른 石列이 서쪽으로 뻗어 있었다.

廻廊의 폭은 復廊인 경우 礎石과 基壇石이 잘 남아있어 東廻廊의 예를 들면 2리면의 柱間이 一〇·六三尺이고 2리면의 柱間이 九·二五尺이었다 하며, 單廊은 殿堂址 B와 C 사이에 있는 廻廊南端部에 一部 남아있는 礎石으로 보아 前述한 復廊의 柱間과 같다. 또 殿堂址 C와 D 사이에 놓인 廻廊址는 그 遺址가 不分明하긴 하나 推測하여 東西幅이 약 五〇尺 內外였던 것 같다고 하여 C와 D 殿堂址間의 東西廻廊이 重複되었던 것 같다.

이 建物址들의 基壇은 報告書에 의하면 大部分 밑에 布石을 하고 그위에 無文의 長方形磚을 쌓아올렸다 한다. 또 礎石은 統一新羅時代의 圓形柱坐를 갖는 四角礎石이라 하였으며 前記한 石列은 川石으로 쌓아 이루는 幅三·四尺 정도의 垣牆址라 한다.

이상 이 建物群址의 性格을 보면 그 規模나 配置로 보아 周圍에 더 擴張되어 있었을 것으로 推測되며 이들은 많이 流失되었을 것이다. 또 殿堂址 B를 中心으로 東·西·南·北에 重要建物들이 配置되어 마치 高句麗의 淸岩里 寺址와 같이 五行思想의 方向을 갖는 配置라고도 볼 수 있고 또 前述한 雁鴨池의 南·西岸 建物群의 配置와도 相通되는 점이 많으며 寺刹의 伽藍과도 共通되는 配置를 보인다.

더우기 이곳에서 出土된 寶相華紋의 塼은 雁鴨池에서 出土된 寶相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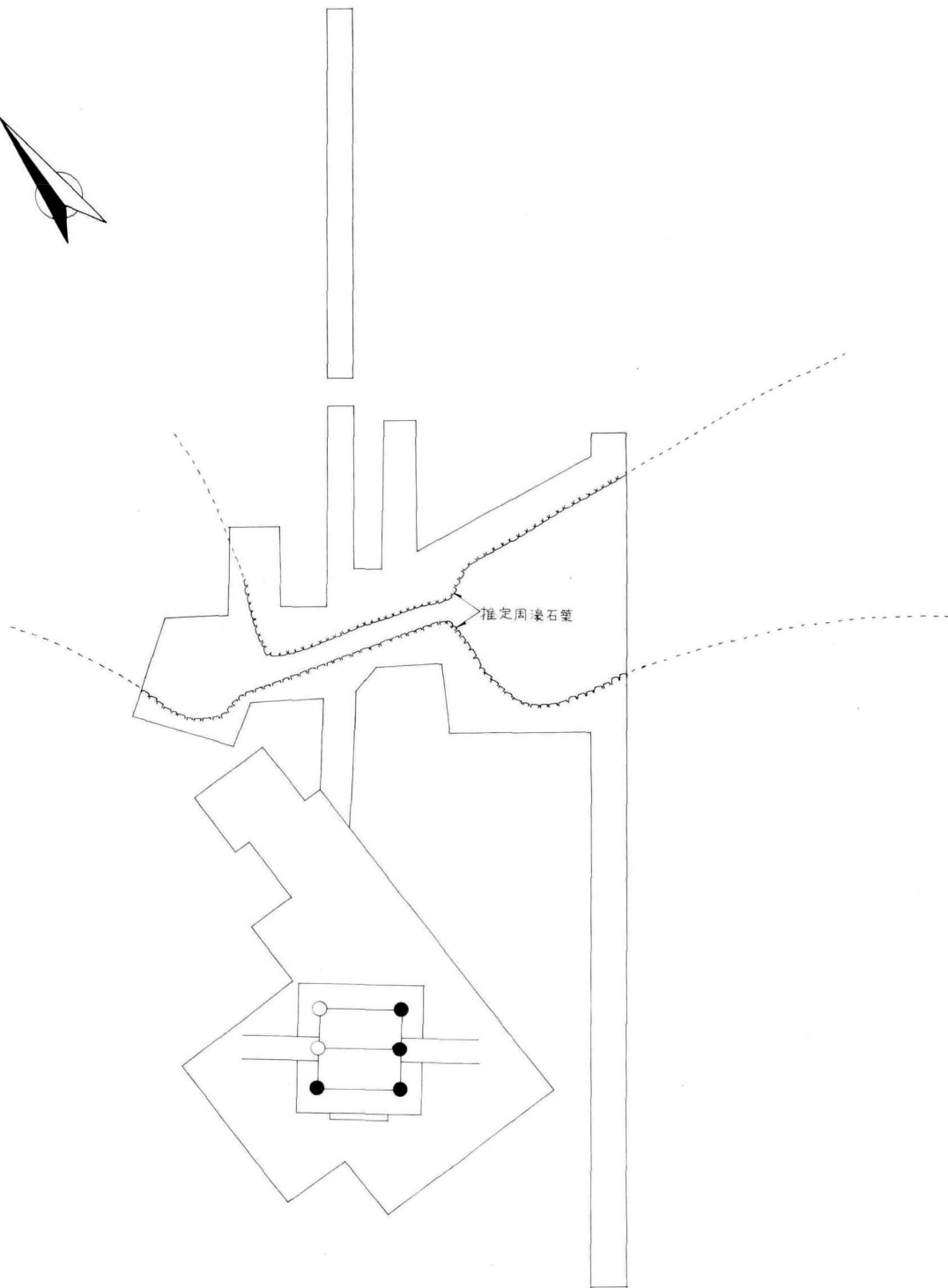
紋塼과 相通한다는 것도 흥미있는 것이다. 이 建物址들은 前述한 바와 같이 三國史記地理志에 나오는 〈新月城 北에 滿月城이 있어 그 周가 一八三八步였다〉하는 滿月城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學者도 있다^⑧ 그러나 確實한 根據가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4. 鮑石亭

慶州 南山 西麓에 있는 이 建址는 新羅의 亡國悲話가 깃들인 記錄을 보이는 建物址이다. 三國史記 新羅本記 第十二 景哀王條 四年 九月에 보면 〈後百濟의 甄萱이 高鬱府에서 侵入하므로 王은 高麗 太祖에게 救援을 請하니 太祖는 將士에게 強兵 一萬을 내어 구원케 하였다. 겨울 十一月, 甄萱은 救援兵이 미처 도착하지 않은 틈을 타서 엄습하여 서울 (慶州)에 당도하였다. 王은 妃嬪宗戚과 鮑石亭에서 잔치를 하고 놀다가 不知不覺中 賊兵이 들이닥쳐 어찌할 바를 몰랐다. 王과 王妃는 後宮으로 쫓겨 들어가 宗戚과 公卿大夫士女는 四面으로 흩어져 달아나 숨어버렸다. 甄萱은 軍사를 풀어 公私의 財物을 다 약탈하고 宮闕에 들어가 처소를 정한 후 左右에 명하여 王을 수색케 하니 王은 妃妾 수명과 함께 後宮에 있다가 軍中으로 잡혀왔다. 甄萱은 王을 自殺케 하고 王妃를 強奸하고 그 부하들을 시켜 妃妾들을 난행케 하고 드디어 王의 族弟를 세 위임사로 國事를 代理케 하니 그가 바로 敬順王이다〉라고 되어 이곳의 悲哀를 잘 설명하여 준다. 記錄에 보아 알 수 있듯이 이곳 가까이 後宮이 있었던 것 같고, 여기서서 주로 王이 親族을 데리고 향유하던 場所였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鮑魚(전복)와 같은 형태의 平面에 石溝가 돌아가 술잔을 曲水에 띄워 돌리던 石溝만이 남아있다. 三國遺事에도 史記와 같은 內容이 있고 또 處容郎과 望海寺條나 負女養母條에도 鮑石亭에 대한 다른 記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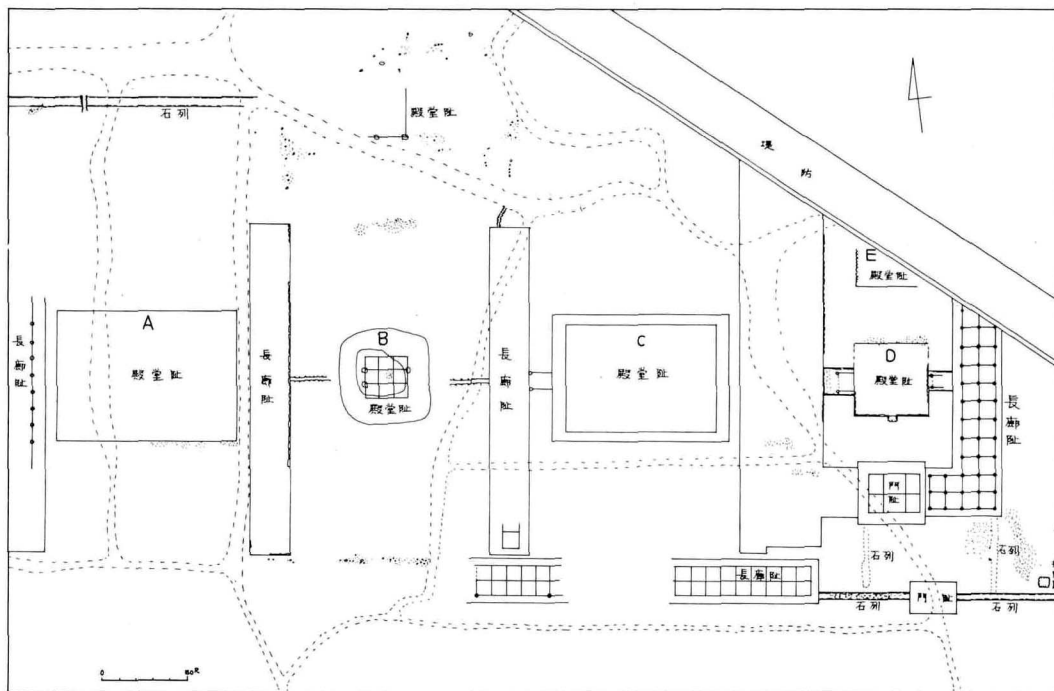
5. 瞻星臺

三國遺事 善德王 知幾三事條 끝에 「善德之創靈廟寺、且載良志師傳、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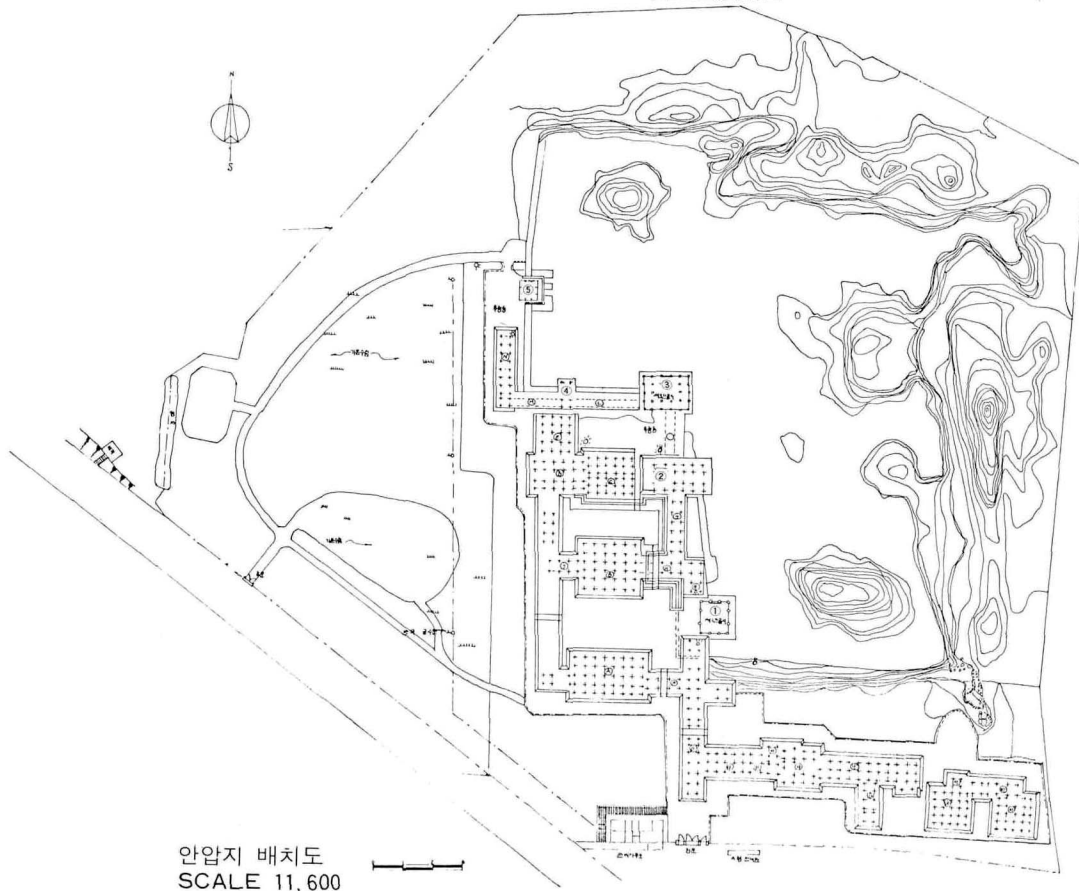


月城發掘現況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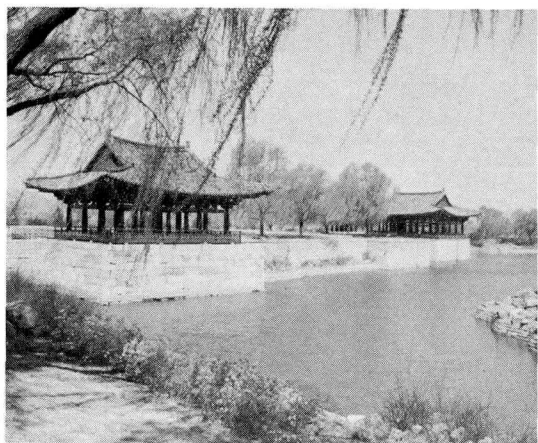
月城發掘現況圖



城東里遺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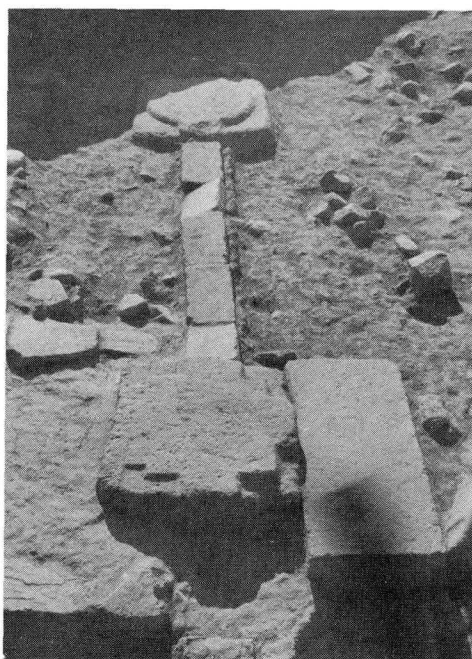
안암지 배치도
SCALE 11,600



圖版 1. 雁鴨池 西便 護岸 第一, 三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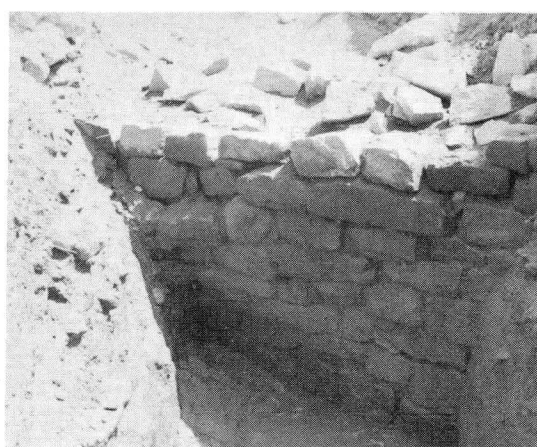
圖版 2. 半月城 東門址



圖版 3. 半月城 東門址
信朽石 毀 礎石



圖版 4. 半月城 周濠 石築



圖版 5. 半月城 周濠 石築 細部

之。別記云。是王代、鍊石築瞻星臺라 하여 이때(六三二~六四七)에 둘을 다루어 침성대를 쌓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東洋最古의天文臺이다。臨海殿 서쪽 약 六五〇m에 위치하며 임이 넓은 병과 같이 생겼다。

天文臺는 官設로서 이미 記述했듯이 高麗末 鄭夢周의 詩에 보면 月城에 있다고 하며 宮中에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음은 興味롭다。

石築으로 二七段을 쌓았고 밑은 圓桶形에다 높이에 따라 直經을 달리 하는 배흘림의 曲을 나타내고 또 頂上部에는 上部直經에 맞추어 井字形으로 잔 二段의 石段이 놓였다。 밑변의 直經은 約 五・二m, 높이는 約 九, 一七m이고 南面 中央地上에서 約 五・二m 위에서 口字로 뚫린 구멍이 있다。 이 구멍에 들어가면 이 문지방 높이까지는 內部가 흠으로 차있고 윗쪽은 텅 비어있다。 여기서부터 사다리로 위에 올라갔던 것으로 推測된다。 花崗石 石築은 圓形平面에 맞추었고 그 表面은 圓周曲線에 맞게 加工되어 차차 올라가면서 안으로 물러쌓아 安全感을 주도록하고 밑에는 方形 二段으로 잔인 長臺石壇을 갖고 있다。 그 한 邊의 길이는 약 五, 三m의 正方形이다。 또 上部 井字形部의 一邊은 약 二, 五八m이다。 瞻星臺에 대한 詩는 鄭夢周를 비롯하여 安軸, 金宗直, 金時習 등의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內容을 생략한다。

結 論

以上에서 統一新羅時代의 宮闕建築에 關聯하여 記錄과 實際의 遺構를 들며 論하였지만 完全한 범위의, 또 確實한 沿革을 갖는 實際 遺蹟을 볼 수 없어 이 時代의 全般의 特性을 들어 어떤 結論을 짓는 것은 無理한 일이다。 그러나 統一新羅時代의 宮闕建築은 몇가지 特徵이 있으니 첫째, 前述한 『三國史記』 屋舍條에 보이듯 建築의 規模나 裝飾, 彩色의 施紋 등 대단히 華麗한 建築을 營爲하였다는 것。

둘째, 宮闕配置에 있어 高句麗의 影響을 받아 五行의 方向에 建物。

配置하거나 또 南北의 여러 軸을 두어 이들 區劃別로 廻廊을 두어 配置하였고 前祖後寢의 法式을 따랐다는 것。

셋째, 宮闕建築配置가 이 時代의 寺刹伽藍配置와 類似하다는 것。 넷째, 廻廊 內廊中心 建物은 平面이 正方形인 것이 흔히 보인다. 다섯째, 雁鴨池에 서는 建物址의 礎石이 建物中心部에도 分布되어 樓形式을 많이 썼다는 것。

등이며 이 중에서도 月城은 新羅初期로부터 統一新羅時代까지 慶州에 있는 宮중에서도 가장 要塞을 이룬 重要한 宮闕이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 ① 考工記에 殷人重屋, 堂修七尋, 堂崇三尺, 四阿重屋이라 함.
- ② 周禮 考工記에 一人明堂, 度九尺之筵, 東西九筵, 南北七筵, 堂崇一筵, 五室凡室三筵이라 함.
- ③ 田美代治·朝鮮上代建築の研究.
- ④ 尹張燮氏는 高句麗가 長安城에 井田法을 一部 쓰기 始作한 것이 6세기頃 인 것으로 보아 新羅는 그 전에 쓰지 못하였을 것이고 統一後에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리라 고 論함.
- ⑤ 『三國史記』 神文王 「五年……三月。置西原小京。以阿湊元泰爲任臣。置南原小京。徙諸川郡民戶分居之……」
- ⑥ 尹張燮·韓國建築史, 東明社, 1973, p. 16
- ⑦ 神宮은 新羅初期부터 記錄이 있으며 三國時代에 盛行한 祭祀를 위한 宮으로 서 日本의 神社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推測됨.
- ⑧ 藤島亥治郎·韓의 建築文化, 昭和 51年, 藝艸堂.
- ⑨ 東國輿地勝覽, 卷二一 慶州府 「在天柱寺址, 文武王 於宮內爲池積石爲山象 巫山十二峯 種花卉養珍禽 其西有臨海殿 其礎砌猶田畝間」.
- ⑩ 朝鮮古蹟研究會, 昭和十二年度 古蹟調査報告 慶州に於ける 新羅一統時代 遺構址의 調査.
- ⑪ 部材의 寸數는 報告書에 依한(雁鴨池, p. 249~253).
- ⑫ 文化財管理局, 雁鴨池, p. 252.
- ⑬ 朝鮮古蹟研究會, 昭和十二年, 古蹟調査報告 慶州に於ける 新羅一統時代 遺構址의 調査.
- ⑭ 藤島亥治郎, 前掲書, 韓의 建築文化, p. 140.